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유치 촉구 결의문(안)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김영태 의원 외 24명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유치 촉구 결의문(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 .

발 의 자 : 김영태·강승수·김근한·김낙관
김민성·김영길·김원섭·김재우
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
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
이명희·이상호·이정화·이지연
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
허민근 의원(25명)

1. 추진배경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이후 그 계획에 따라 두 차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4개 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를 지정하고 각 기술별 특화단지를 지정·육성 예정
- 구미시는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반도체 산업기반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준비된 반도체 선도 도시로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지정의 당위성을 정부에 적극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2. 제안이유

- 구미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소재부품부터 수요기업까지 전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과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춘 기업이 포진해 있는 반도체 선도 도시임
- 특히 국내 최대 국가산단 보유 도시답게 부지·용수·전략·항공물류 경쟁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수도권 반도체 단지 후방에서 지원하는 소재부품 중심의 특화단지라는 전략으로 향후 K-반도체 국제 경쟁력 및 국가균형발전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어 정부에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것임

3. 주 문

- 결의문(안) : 붙임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유치 촉구 결의문

구미시는 국가 제1의 산업도시이자 국내 반도체 산업이 태동한 명실상부한 반도체 산업도시로서, 첨단전략산업 기반 생태계와 반도체 기업 집적도 등이 구축되어 있어 특화단지 유치 지정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구미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포진해 있는 반도체 선도 도시이다.

구미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소재부품부터 수요기업까지 전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344개사가 집적화되어 있으며, 높은 세계시장의 점유율과 선진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반도체 소재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구미는 부지·용수·전력·항공물류 경쟁력 등 완벽하게 준비된 반도체 특화단지이다.

구미는 국가5산업단지 2단계의 168만평 부지 보유와 더불어 공업용수, 전력, 신공항 개통으로 인한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산업기반이 완비되어 있어 사회적 갈등과 추가 비용없이 신속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안보의 기틀 마련이다.

구미는 수도권 반도체 단지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소재부품 중심의 특화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성공적인 반도체 산업밸류체인을 구축해나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시대에 가장 민감한 첨단전략산업의 전초기지로서 경제안보 및 더 나아가 수도권보다 우위의 국가 안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K-반도체의 안정적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구미 유치는 필연적이다.

하나. 정부는 국제 경쟁력 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라!

하나. 구미는 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전력 반도체 모두 아우르는 반도체 강국 실현의 진정한 주체이다.

2023. 6. 2.

구미시의회